

# 해방직후 귀환 서사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젠더 - 전홍준의 「귀환」과 이금남의 「이향」을 중심으로 -

임 미 진\*

## 요약

이 논문은 해방직후 귀환하는 남성의 내셔널리즘의 형성과정과 여성들의 행위를 통해 불/가능한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해방 직후의 소설에서 조선으로 귀환하는 여성은 남성에게 의지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성의 행위가 가지는 규율과 전복은 예기치 않는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것은 자기행위를 지닌 여성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한다. 여성과 함께 조선으로 귀환하는 남성의 경우 여성의 행위는 남성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귀환」에서 민족지(民族地)로 상징되는 수연의 행위는 남성화자인 '나'가 해방된 조선의 민족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주요한 배경막을 제공한다. 반면 「귀환」과 「이향」의 안나는 수연과 달리 외부자로서 상징된다. 안나는 조선으로의 귀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민족주체로서 조선의 경계 내로 들어오고자 하는 남성의 욕망에 규율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의 귀환을 추문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행위는 남성의 배경막이 아닌 자기행위를 지닌 여성주체로의 변모를 예고한다.

\* 청주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주제어: 귀환, 내셔널리즘, 젠더, 자기행위, 전홍준, 이석훈, 이금남

목차

1. 서론: 귀환과 내셔널리즘의 형성
2. 민족지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귀환여정
3. 외부자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귀환여정
4. 결론

## 1. 서론: 귀환과 내셔널리즘의 형성

1945년 8월 일본제국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함으로써 해외에 있던 조선인은 ‘해방민족’으로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1945년 10월 공식 귀환기구가 설치된 후부터 1947년 12월까지 남한으로 유입된 인구는 약 260만 명에 달했다.<sup>1)</sup> 1945년 일제 패망 당시 해외조선인의 수가 대략 500만 명에 이르렀다는 조사를 참고하면 공식적으로 50% 이상이 근 2년 안에 귀환한 것이다.<sup>2)</sup> 더구나 260만 명 중 대부분은 1946년 중반까지 귀환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외조선인 중 절반 가까운 인구

- 1) 이연식, 『해방 직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전농사론』 5, 1999, 157면 표7 참고. 해외동포의 귀환 통계는 자료마다 편차를 보인다. 그 이유는 재만조선인의 유입 인구의 수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연식은 해방직후 해외조선인 원호사업을 주도한 ‘전재동포원호회’의 수치를 주 자료 파악한다. 반면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 *The Origins of the Korea War*』(김자동 옮김, 일월서각, 1986, 97면)에서 1948년 발행한 『조선경제연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남한으로 유입된 인구는 230만 명이다. 귀환자 수의 자료편차에 대해서는 이연식, 앞의 논문, 157면.
- 2) 장석홍,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 25, 2003, 10면.

가 1년 내에 귀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귀환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해외 각지에서 돌아오는 조선인을 전쟁의 재난을 입은 ‘귀환전재민(戰災民)’이라고 부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귀환과정은 전쟁의 고통과 혼란 그 자체였다.<sup>4)</sup> 이 시기 신문지상에서는 연일 돌아오지 못하는 귀환자의 참상과 돌아온 자들의 생활난을 호소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sup>5)</sup> 조선에 머물던 일본인이 ‘일본인세화회(日本人世話會)’라는 원호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송환된 것과 달리, 조선인은 물자를 지원할 수 없는 열악한 구호조직, 미군정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기아와 병사에 직면한 상태에서 귀환해야만 했다.<sup>6)</sup> 그야말로 해방직후 해외 조선인의 귀환은 생사를 넘나드는 월경(越境)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생사를 넘나드는 그들의 월경은 ‘국가’의 영역을 구획하고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해방직후 식민지 민족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경의 구획이다.<sup>7)</sup> 국경

3) Bruce Cumings, 앞의 책, 97면.

4) 이연식이 지적하고 있듯이, 전재민이란 용어는 일본의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의제적 개념으로, 식민지 조선인이 입은 피해를 전쟁이라는 틀로만 제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재민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참혹한 흔적은 이 시기 귀환자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연식, 앞의 논문, 134-135면.

5) 연일 신문지상에는 “南北滿에서 彷徨하는 一白四十萬同胞, 殺傷, 掠奪, 逐出의 三重慘景”을 고발하며 “학대받는조선노무자들 한파와 기아로 위협은 익익점가”(『자유신문』, 1945.10.25.)하고 있다는 등의 해외에 남아있는 조선인의 참상을 알리는 글을 비롯하여, 조선의 경우 천 명 정도 수용 가능한 전재민 수용소에 사천오백 명이 모여 있어 “전재동포”를 위한 “시급한 대책”(『戰災民의 生活對策』, 『동아일보』, 1946.6.4.)이 필요하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었다.

6) 이연식, 『해방 직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전농사론』 5, 1999, 164-167면.

7) 니시카와 나가오는 국민nation과 민족ethnic의 다른 점은 “국민에는 국민을 담는 그릇이라는 할 국가가 있고 또 영역을 구획해놓은 국경이 있지만, ‘민족’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은 상상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제도 등에 의하여 변동 가능한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1945년 일제의 패전은 제국의 경계선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국의 신민'으로 머물던 해외 조선인은 조선 영역 내에 있던 조선인과는 다른 애매모호한 위치를 부여받는다. 실제로 미국정부가 "재일 한인(在日韓人)을 일본인이 아닌 '해방민족'으로 취급하면서도, '일본인'과 같은 '적국민'으로 취급"하겠다는 등의 이중 잣대는 그들의 불안정한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sup>8)</sup> 불안정한 위치를 부여받은 해방직후 해외 조선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월경을 해야 하는 와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에 기반을 두어 근래의 귀환서사 연구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귀환자가 어떻게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는지에 대해서 주목한다. 정중현은 해방기 귀환서사는 식민지의 경험을 민족적인 기억으로 재편성하면서 국민국가의 심상지리를 구획한다고 논구한다.<sup>9)</sup> 최정아는 "귀환서사는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상징적인 의례의 형식이며, 자아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체계"라고 밝힌다.<sup>10)</sup> 이들 연구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 시기의 귀환은 거주지의 이동을 넘어서 제국으로부터의 해방과 내셔널리즘의 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국가'의 영역을 구획하고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의 전사로 상징된다.<sup>11)</sup>

다. 니시카와 나가오, 한경구·이목 옮김,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6, 242면.

- 8) 『일본 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초기 기본지령』(1945.11.1.) 장석홍,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대사연구』 25, 2003, 14면. 재인용.
- 9) 정중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比韓文學』 40, 2006.
- 10) 최정아,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귀환 의례'의 메커니즘과 귀환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3, 2009, 389면.
- 11) 물론 귀환서사를 민족주체 형성 과정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류보선은 만주에서 조선으로 귀환하는 한 가족의 서사를 다룬 채만식의 『

주요한 것은 이 시기의 귀환이 ‘국민형성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국민국가는 자신의 존재와 적법성을 국민으로 호명되지 않는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의존하는 정치적 구성체다.<sup>12)</sup> 이는 국민국가는 국민에 포섭되지 않는 자들의 추방과 권리를 배제함으로써 유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틀러는 국민국가를 호명함에 있어서 배제된 외부공간이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민국가가 “추방을 통해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국적을 내세우며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경계짓기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해방직후 귀환자를 국민으로 호명하는 월경은 경계 바깥으로의 추방이 아닌 경계 내로의 포섭 형태로 이뤄진다. 귀환자는 경계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이 조선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 ‘증명과정’은 곧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조선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는 증명과정을 통해 귀환자가 경계 내로 통과되거나 통과가 거부되는 순간 국가라는 상징적 경계가 구획되고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과연 귀환여정에서 귀환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이 조선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을까.

해방직후 염상섭의 『첫걸음』(1946), 안희남의 『쌀』(1946), 정비석의 『귀향』(1946), 김만선의 『한글강습소』(1946) 등의 귀환소설에서 귀환자의 내셔널리즘 정체성은 고향으로 귀향(귀속)하고자 하

『소년이 자란다』(1949)의 경우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의 순간도 고향 입구에 들어 설 때의 환희도 부재하며 대신 뒤늦게 도착한 해방에 당황하고 어쩔 수 없이 (귀향 없는) 귀환을 선택한 유이민이 있다고 지적한다. 류보선,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49, 2012.

12)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주혜연 옮김, 『누가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124면.

13) 위의 책, 39면.

는 '열망'을 통해 확보된다. 귀환자는 귀속열망을 매개로 국가라는 경계를 상상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흥미로운 점은 귀속열망을 표출하며 귀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인물의 대부분은 남성이라는 점이다. 반면, 여성의 귀환은 귀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남성과 동행함으로써 가능하다.<sup>14)</sup> 이해령에 의하면 “젠더적 규범에서 남성성의 회복은 곧 국가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해방의 표상”이다.<sup>15)</sup> 그런 점에서 귀환소설에서 남성에 의한 귀속열망은 남성성의 이상화를 통한 국가재건을 상징하며, 여성은 “남성성 회복”의 배경막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귀환여정에서 주요한 것은 해방된 조선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의 ‘증명과정’으로, 귀환자의 귀속열망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귀환소설에서 내셔널리즘의 재건을 위한 젠더 위계질서가 공고하다고 했을 때, “남성성 회복”의 합리화가 어떠한 근거 하에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셔널리즘과 젠더 위계질서가 맺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망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방된 조선으로 귀환하는 남성과 그와 동행하는 여성이 어떠한 관계 맺기를 통해 해방된 조선이라는 국민국가의 경계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작품은 전홍준(全洪俊)의 『귀환(歸還)』(『여성공론』, 1947.7)과 이금남(李金男)의 『이향(異鄕)』(『민심』, 1946.3)

14)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 32, 2007.

15) 이해령, 「해방기 식민 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19, 2008, 261면.

16) 귀환서사에서 여성이 차별,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한국문학연구』 32, 2007), 최정아, 앞의 논문 ; 류진희, 「엄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젠더」(『상허학보』 27, 2009) 참고.

이다. 두 작품은 그간 귀환서사에서 논의되지 않은 작품으로, 서사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데 주목을 요한다.

## 2. 민족지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귀환여정

1946년 4월 『부인』에 『코』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전홍준은 1949년까지 『새벽』(『문학』, 1948.4), 『큰 대문 집의 역사』(『조광』, 1948.10) 등 9편의 단편소설과 2편의 수필을 발표한다.<sup>17)</sup> 이후 전홍준의 행적은 알 수 없으며, 해방 전 이력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sup>18)</sup> 현재 전홍준의 해방전후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수필 『피난자의 수기』(『개벽』, 1946.1)가 유일하다. 『피난자의 수기』는 1945년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작가의 귀환일지를 기록한 것이다. 전홍준은 장춘(長春) 서사도가(西四道街) 부근 통신사에서 근무하다가 8월 9일 공습으로 더 이상 장춘에 머무는 것이 불가하여, 8월 13일 “어린애 같은” S와 평소 존경하던 선배 M 씨와 함께 철도연변(鐵道沿邊)인 공주령(公主嶺) 사평가(四平街) 해안구(海河口)를 경유하여 부친이 있는 삼원포(三源浦)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맹가둔을 거쳐 간신히 트럭을 얻어 타고 대둔역(大屯驛)에 도착한다.<sup>19)</sup> 『피난자의 수기』는 대둔역에서 일본의 패전소식

17) 장노현에 의하면 1949년 5월 『신천지』에 발표한 『모두 불이 그리우면서도』를 끝으로 더 이상 작품 발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장노현의 연보에 『귀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귀환』을 포함하면 전홍준의 소설은 9편이다. 장노현, 『전홍준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22, 2002, 318면.

18) 전홍준의 생몰년과 태어난 곳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전홍남에 의하면 전홍준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전향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수복 후 옥사(또는 처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홍남, 『해방기 전홍준의 소설 일고』, 『현대문학이론연구』 7, 1997, 207면.

19) 중국 동북 지린성 유하현 삼원포는 식민지 조선의 해외 독립운동 발상지다. 삼

을 듣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후 전홍준이 목적이인 삼원포에 도달했는지, 또는 어떠한 경로로 조선의 경계 내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실은 더 이상 알 수 없다. 다만 『피난자의 수기』의 귀환여정이 소설 『귀환』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방전후 귀환을 통해 형성한 작가의 자기정체성 형성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홍준의 수필 『피난자의 수기』와 소설 『귀환』의 귀환여정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귀환』은 전홍준의 자전적소설로 분류가능하다. 『귀환』에서도 『피난자의 수기』에서 언급했던 대로 귀환 길에 오르는 인물은 세 명이다. 『귀환』에서의 세 명은 ‘나’와 수연, 그리고 허철선생이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것은 수연에 대한 ‘나’의 감정 변화와 만나에 대한 허철선생의 태도다. 후술하겠지만, ‘나’는 자신과 정반대편에 허철선생과 그의 애인 안나를 두고 수연과 자신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귀환여정을 완성한다.

『귀환』에서의 ‘나’의 귀환은 해방의 감격과 기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아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만주에서 귀환한 조선인 경우 해방의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귀환한 경우보다 전화(戰禍)를 피해 귀환하거나 현지에서 자신들이 일군 농토를 빼앗겨 귀환한 경우가 많았다.<sup>20)</sup> 이 말은 그들의 귀환은 조국의 해방소식을 듣고 감격에 겨워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귀환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타의에 의해 시작된 귀환여정에서 귀환자가 어떻게 해방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가이다.

원포는 1910년대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등이 세워지면서 조선인촌으로 불리었다. 전홍준의 친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로 보아, 적어도 전홍준은 가족과 함께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 이연식, 『왜 식민지하 국외이주 조선인들은 해방 후 모두 귀환하지 못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24, 2006, 98면.



『귀환』의 여정 역시 출발할 당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귀환자의 정체성 형성이 텍스트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인물들의 귀환은 조선의 해방 소식을 듣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다. 텍스트에서 신경은 “전란의 도시”로 “능욕과 약탈”로 인해 조선인이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한 도시로 그려진다. ‘나’는 허철선생의 여동생 수연과 허철선생, 그리고 허철선생의 연인 안나와 함께 신경을 떠나기로 한다. 그러나 안나가 “기운없는 창백한 얼굴”이지만 “단호한 태도”로 동행하기를 거부하자, 일단 세 명만 피난길을 떠난다. 그런데 돌연 허철선생이 안나가 있는 신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소설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 신경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허철선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겪으며 간신히 이곳까지 피난을 해왔는데 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한 그곳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또다시 뒤돌아갔다 오겠다는 허철선생의 속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중략...) 이 최후의 마당에서 여성이 가진바 온 정열을 다하여 사랑하던 허철선생을 따르지않는 안나의 그때의 그 심정에도 어떤 비장한 결의가 숨어 있었던 것은 타눈에도 역력히 짐작할수 있었다. 지금와 생각하니 안나의 그 때의 그 표변(豹變)과 지금의 허철선생의 이 번의(翻意)에는 어딘가 일맥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다.<sup>21)</sup>

소설의 첫 부분인 인용문에서, ‘나’는 허철선생과 안나의 불안정한 관계를 드러내며 허철선생을 이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자신과 그들을 분리시킨다. 허철선생이 안나를 향해 되돌아가고 나와 수연이 조선인이 모여 있는 곳으로 피난지를 옮기는 순간 ‘나’와 수연, 그리고 허철 선생과 안나의 운명은 귀환 가능한 자와 불가능 자로 나뉘진

21) 『귀환』, 『여성공론』, 1947.7, 66-67면.

다.

우선 ‘나’와 수연의 귀환과정부터 살펴보자. 허철 선생이 떠난 뒤 ‘나’와 수연은 대둔역에서 남행열차를 타기로 했지만, 열차는 정차역에 좀처럼 서지 않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둔역을 지나치는 남행열차는 무개화차(無蓋貨車)에 몸을 신고 일본 국기를 내흔드는 일본사람들 뿐이다. 일제의 패전이 길게 드리운 만주에서 조선인의 자리는 부재한다. ‘나’는 시종일관 자신의 처지를 “영원한 보헤미안”, “아무런 보호가 없는” 인물에 비유한다.<sup>22)</sup> ‘나’가 피난길에 마주한 현실은 국가 없는 민족의 애환으로, 그는 자신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하지 모른다. 이처럼 귀환의 방향성이 부재한 ‘나’에게 ‘고향’이라는 조선땅을 상기시키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바로 수연이다. 수연을 통해 홍근은 ‘민족지(民族地)로서의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다. 이러한 의식은 총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된다.

첫 번째는 허철선생과 헤어진 직후 대둔역에서 벌어진다. 사실 허철선생이 “서울에서 아무 탈없이 부모슬하에서 취직하고 있던” 누이동생 수연을 만주로 부른 이유는 ‘나’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나’는 허철선생의 의도를 짐작하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나’는 수연에게 선뜻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 ‘나’가 수연에 대해 애정을 느낀 것은 바로 이번 피난길에서다. 매일 밤 대둔역에서 정차하지 않는 남행열차를 기다리는 수연의 행위를 보고 나는 아래와 같은 결심을 한다.

나는 이런 정황을 볼때마다 눈시울이 뜨겁도록 어떤 감격에

22) 이러한 감정은 『피난자의 수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피난자의 수기』에서 전홍준은 장춘에서 일본인들이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렇다 나는 이때처럼 나라없는사람의 슬픔을 절실히 느낀적은 없었다.”라고 고백하며 국가 없는 민족인의 애환을 피력한다. 전홍준, 『피난자의 수기』, 136면.

휩쓸리며 그 자리에 포삭 수연을 꺼안어 주고 싶은 정열에 온몸이 화끈 다리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때마다 무슨일을 해서든지 내목숨을 걸어서라도 수연을 그대로 고스란히 직혀 고향까지 데리고 갈 것을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는 것이었다.<sup>23)</sup>

고향으로의 귀환을 간절히 원하는 수연의 애처로운 모습은 ‘나’의 남성다움을 자극한다. 여성을 의지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 치부하고 그러한 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남성우월사상이 작동되는 순간, ‘나’는 남성성을 회복하고 조선땅인 고향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확고히 한다. 그 이전까지 ‘나’에게 귀환은 전란을 피해 떠난, 타의에 의한 여정이었다. 대둔역에서 전란을 피해 고유수(孤楡樹)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남쪽 땅 조선으로 내려 갈 것인지 정하지 못한 ‘나’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여성, 수연을 발견함으로써 그녀와 함께 고향에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첫 번째 수연의 행위는 ‘나’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수연의 행위는 ‘나’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방된 조선의 국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매개한다. 조선에서 온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수연과 달리 오랫동안 만주에 있었던 ‘나’는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나’가 천황의 항복 선언을 듣고 다소 애매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가 조선의 해방소식을 들은 것은 대둔역으로, 고향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매일 대둔역을 나가보던 그때 ‘나’는 역 앞에 “전쟁완료세계평화(戰爭完了世界平和)”라고 쓴 큰 글자를 본다. 이후 ‘나’는 임시거처로 돌아와서 조선인들과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천황의 “우름섞인 호소”를 재차 확인한다. 천황의 패배선언이 나에게 기쁨과 환희를 안겨준 것은 의심

23) 『귀환』, 70면.

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는 천황의 목소리를 “얼마간의 측은한 마음”으로 듣는다. 일본제국 만주에서 이등국민으로 살아 온 ‘나’에게 천황에 대한 측은한 감정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을 상징한다.<sup>24)</sup> ‘나’의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불식시키는 것은 8.15를 맞이하는 수연의 행위다. 조선의 해방 소식을 들은 그날 수연은 ‘나’에게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있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수연의 고백은 ‘나’에게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내맡겨 터려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컨대 그것은 아직까지의 울적이 쌓여있던 모든 장해와 검은 구름이 일본의 패부와 함께 일시에 운산무소되어, 그와 동시에 젊은 정열이 탁 풀려 나온지도 모르는 일이다. (...중략...) 실상 그들 일본세력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개인의 사소한 행동에 까지라도 항시 감시와 간섭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강박관념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과 정렬은 거진 허수아비처럼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유형무형의 쇠사슬은 끊어져나간 것이다. 우리의 호흡을 호흡대로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자유가 온 것이다...

나는 앞날이 환히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조국의 독립! 수연 이와의 결혼 일, 일, 나는 이런 것을 생각만해도 가슴이 흐뭇이 벅차 올라오는 것이었다.<sup>25)</sup>

24) 일제 강점기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은 이등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식민지조선에서 일본과 조선은 지배자와 피지배로 나눌 수 있지만, 오족협화를 내세운 만주국에서 일본에 협력적인 조선인은 일본인 다음 가는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일본 이외의 타민족보다 우월한 위치를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3-23면 참고.

25) 『귀환』, 75면.

인용문에서 보듯, ‘나’는 수연의 고백을 그동안 식민지의 억압과 불안을 해소하는, “자유”를 상징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수연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한 것을 식민지의 “죄사슬”로 치환함으로써 ‘나’는 일제를 적대자로 인식하고 해방된 조선의 민족주체성을 회복한다. 나아가 ‘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미래의 장소에 “조국의 독립”과 나란히 수연과의 결혼을 배치한다. ‘나’에게 수연과의 결합은 곧 조국의 독립을 상징한다.

결과적으로 『귀환』에서 수연은 ‘나’에게 민족지(民族地)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인물로, 고향으로의 귀환이라는 목적의식과 해방된 조선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배경막’을 제공한다.<sup>26)</sup> 주요한 것은 ‘나’는 민족지로서의 수연을 보살피는 가부장으로 자신을 호명하면서 해방된 조선의 경계 내로 귀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귀환에 대한 ‘나’ 열망은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성을 확보하면서 해방된 조선의 “새로운 조선사람”으로서의 당위성을 획득한다. 수연은 남성의 이상향으로서 ‘강요된 정체성’을 부여받은 수동적인 인물이다. 당연히 수연에게는 자기이야기를 지닌 자아가 부재한다. 이때 여성은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배경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귀환』에서는 남성성의 회복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대둔역에서 다시 “전란의 도시” 신경으로 되돌아간 허철선생과 안나의 관계 때문이다. ‘나’가 자신과 수연과 분리시키고 있는 허철선생과 안나의 관계는 내셔널리즘에서의 젠더위계 질서의 불안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수연이 허철선생과 ‘나’를 거역하지 않는 수동적인 여성이라면, 안나는 허철선생의 의견을 따르지 않

26) 조지모스는 여성은 진보가 아니라 불변성을 표상함으로써 남자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배경막’을 제공하였다고 언급한다. 여성은 지킴이 또는 어머니로 상징됨으로써 안정적인 민족의 이미지를 상징하였다는 것이다. George L. Mosse,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Nationalism and Sexuality*』, 소명출판, 2004, 35-44면.

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여성이다. 허철선생과 함께 피난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나의 행위는 수연과 달리 '남성의 이상향'으로서의 여성으로부터 이탈한다. 귀환을 거부하는 안나의 행위는 처자식이 있는 허철선생의 조선으로의 귀환을 알 수 없는, 파악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기실 안나가 남성의 이상향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이유에는 안나가 "로시아 태생"이라는 것이 큰 작용을 한다. '나'는 허철선생과 안나가 "큰 뜻을 품고" 러시아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귀환」이 보여주고 있는 서사는 여기까지이다. 허철 선생이 안나와 함께 안나의 고향인 러시아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홍준의 「귀환」 서사와 이금남의 「이향」의 서사적 유사성에 주목하면, 허철선생의 귀환과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 외부자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귀환여정

이금남(李金男)의 이름으로 발표된 소설은 현재까지 「이향(異郷)」(『민심』, 1946.3)이 유일하다. 신미삼은 「이향」의 이금남이 이석훈의 필명 이금남(李金南)과 유사하며, 「이향」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력, 즉 만주 신문사에 근무하는 지식인이었다는 점, 서울에 아내와 자식을 두고 홀로 만주에 이주했다는 점, 술을 못한다는 점, 신경을 탈출할 때 '무개화물차(無蓋貨物車)'를 탔다는 점 등이 이석훈의 이력과 일치한다는 것을 들면서 「이향」의 작가를 이석훈으로 보고 있다.<sup>27)</sup>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보인다. 「이향」의 작가가 이석훈의 행적과 유사한 것은 신미삼이 지적한 것 이외에도 여러

27) 신미삼, 「해방기 이석훈 연구」, 『인문연구』 77, 2016.8.

가지가 있다. 『이향』에서의 화자 ‘나’는 만주이주의 이유를 “본디 서울을 떠나있어야 할 관계상 만주를 간 것”이라고만 간략하게 밝히고 신경에 1년 정도 머물다 마음이 바뀌어 러시아로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봉천, 하얼빈, 신경 등으로 떠돌다가 “신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45년 4월 신경의 신문사에 일시 적을 두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실제로 이석훈이 만주로 넘어간 것은 녹기연맹을 그만둔 1943년으로 추측되는데,<sup>28)</sup> 『이향』에서의 화자가 만주로 넘어온 시기도 1943-1944년 사이다. 당시 이석훈이 처자식을 서울에 두고 만주로 간 연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윤대석에 의하면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의 자전소설 『선령(善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의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는 『선령』에서 혁명가 예세닌 시를 인용하여 일본평론가들이 유감을 표한 것이다.<sup>29)</sup> 그가 내선일체의 모순을 직시하였다는 점이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인데, 이는 앞서 『이향』에서 이주 이유로 언급한 피치 못할 사정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석훈의 수필 『전시하의 만주(戰時下の滿洲)』(『조광』, 1944.11)에서 보듯, 이석훈은 하얼빈, 봉천 등을 떠돌아다녔으며, 『만주의 백계 러시아 문학(滿洲の白系ロシア文學)』(『국민문학』, 1944.3)에서 보듯, 그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피력한다. 물론 러시아문학에의 조예는 이석훈이 노서아문학을 전공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이석훈의 이력과 관심사항은 『이향』에서의 ‘나’의 행적과 일치한다. 다만, 『이향』에서 신문사에 적을 둔 것을 1945년 4월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향』의 작가가 이석훈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 이석

28) 논자에 따라서 이석훈의 만주이주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윤대석은 1943년 8월로 보고 있으며, 김용성은 1944년 초로 보고 있다.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33면 ; 김용성, 『작가연보』, 이석훈 저, 김용성 편, 『이주민열차(외)』, 범우, 2005, 445면.

29) 윤대석, 앞의 책, 32-33면.

훈이 『만선일보』의 객원으로 가게 된 시점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안수길의 『북향보』를 연재하던 1944년 12월에서 1945년 4월 사이에 편집국에서 근무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이향』에서 언급한 시기보다 이르다.<sup>30)</sup> 그러나 『이향』이 해방 이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인공이 일본인이 주간과 일본인 이사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1년 이상 있었다고 설정하는 것은 독자에게 주인공의 친일행적을 밝히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 기간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보면 『이향』의 작가가 이석훈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귀환』과 『이향』의 서사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전홍준과 이금남이 적어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만주에서 귀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 표는 두 작품의 서사의 유사성을 정리한 것이다.

『귀환』	『이향』
허철선생은 조선에 처자식을 두고 있다	‘나’(백군)는 서울에 처자식을 두고 있다.
평소 허철선생은 “소련잡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나’는 “중국연안이나 소련”으로 탈출계획을 꿈꾸고 있었다.
허철선생은 신경에서 안나를 만났다.	‘나’는 신경에서 안나를 만났다
허철선생은 ‘나’(오홍군)와 수연을 맺어주기 위해 누이동생 수연을 신경으로 부른다.	오군의 처 해자는 ‘나’의 육촌동생으로 ‘나’의 소개로 둘은 결혼하였다.
해방의 소식을 듣기 전, ‘나’와 수연, 허철선생과 안나는 피난을 떠나기로 한다.	해방의 소식을 듣기 전, ‘나’와 안나, 오군부처는 피난을 떠나기로 한다.

30) 안수길은 『문단교류기: 나와 龍井·新京시대』(『대한일보』, 1970.5.1.)에서 『북향보』를 연재하던 당시 『만선일보』 편집국에 이석훈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피난을 떠나는 날, 갑자기 안나는 따라가지 않고 신경에 남는다.	피난을 떠나는 날, 갑자기 안나는 따라가지 않고 신경에 남는다.
‘나’와 수연, 허철선생은 피난길을 떠난다.	‘나’와 오군부처는 피난길을 떠난다.
허철선생은 대둔역에서 안나를 찾기 위해 신경으로 되돌아간다.	‘나’는 대둔역에서 안나를 찾기 위해 신경으로 되돌아간다.
허철선생은 ‘나’에게 개인행동은 하지 말고 조선인 부락지 고유수로 가라고 권한다.	‘나’는 오군부처에게 개인행동은 하지 말고 조선인 부락지 고유수로 가라고 권한다.

위 표를 보면 『이향』의 작중화자 ‘나’는 앞서 살펴 본 『귀환』에서의 허철선생의 이력과 거의 일치한다. 『귀환』과 『이향』은 동일한 사건과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이점은 『귀환』은 오홍근(‘나’)과 그의 연인 수연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이향』은 백균(‘나’)과 안나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 본 『귀환』에서 민족지로 상징되는 수연과 동행하는 ‘나’는 해방된 조선의 “새로운 조선사람”으로서 조선으로의 성공적인 귀환여정 그리고 있다면, 『이향』은 『귀환』과 정반대의 제목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귀환과정의 분열과 혼란이 봉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된다.

『이향』은 1945년 8월 8일 새벽, 소련군이 만주 일본군을 공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급작스런 소련군의 공습에 만주의 일본군들이 당황하고 8월 9일 라디오에서 소련의 대일선전포고를 듣고 ‘나’는 신문사로 향한다. 신문사에서 ‘나’는 일본인 주간과 이사로부터 “소련의 적색제국주의를 폭로”하는 사설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쓰지 않고 편집차장에서 넘긴다. 여기서 신문사에서 근무한 ‘나’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곳곳에서 ‘나’의 일제협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일본인 주간과 일본인 이사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근무하

게 된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선택하게 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향』에서의 ‘나’는 서울을 떠나있어야 할 관계상 만주 신경에 있는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중국연안(延安)이나 혹은 소련으로 직접소만국경을 돌파해볼까 하는 탈출계획을 은근히 꿈꾸며 때를 기다리다 하얼빈, 봉천 등 여러 곳을 표랑하던 중 무직업으로는 “신변을 안전성을 유지할수없으므로” 1945년 4월 지금의 신문사에 취직하였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나’는 애초의 입사목적이 “일본을위해 소위 언론보국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이 공습을 받은 이 최후판국에 더 이상 신문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일본제국주의 소속의 신문사에 근무하지만 그것이 일제협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재차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제에 대한 반감의식과 서울에 처자식이 있는 ‘나’에게는 ‘조선땅’이 자신의 고향이고 목적지라는 의식이 명확히 존재한다.

나는 저속히 당황하였다. 미상불 만주로부터 빨리 떠나지 못한 나의 노둔함을 후회까지하였다. 내안해 내어린자식들의 얼굴이 번가리 내눈앞에 나타나서 사라지질 않는다. (...중략...) 나는 생각하니 아득하였다. 그러나 ‘개죽엄’을 해셔야 되겠는가. 어떻게서든지 처자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나야한다. 살고저 살고저 극력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면 조선인다운 죽엄을 하자. 놈들을 한놈이라도 죽이고 죽어야 내눈이 감길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못하면 아! 참아 어찌 만리이역에서 ‘개죽엄’을 한단말이냐!? (...중략...) 내마음은 꿋없이 줄기차게 조선으로 고국으로 서울로 자꾸자꾸 내달리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향수(鄕愁)였었던가.<sup>31)</sup>

인용문은 ‘나’가 안나와 함께 신경을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직후의 감정이다. 일본군이 만주의 국민을 동원하여 신경을 사수하

31) 『이향』, 『민심』, 1946.3, 145면.

겠다는 계획을 듣고 ‘나’는 그날 밤, 신경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귀환』의 주인공 ‘나’와 달리 『이향』의 주인공 ‘나’는 탈출의 목적의식과 목적지가 분명하다. 『귀환』의 ‘나’의 경우 피난 초기 “확고한 목적지가 없이” 전란을 피해 신경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다면, ‘나’는 “조선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고국으로” 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확고한 목적의식 없이 떠난 『귀환』에서의 ‘나’가 동행자 수연에 의해 남성다움을 획득함으로써 ‘고향’과 ‘고국’이라는 조선을 명확히 그려내고 있다면,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탈출하여 조선인으로서 귀환하겠다는 『이향』에서의 ‘나’의 확고한 의지는 동행자 안나에 의해 ‘고향’과 ‘고국’으로의 귀환이라는 목적의식이 분열된다.

본래 ‘나’는 휴가 차 8월 9일날 경성으로 가는 차표를 예매하여 11일날 급행차를 타고 경성을 갈 예정이었다.<sup>32)</sup> 그런데 소련의 선전포고와 함께 신경이 전란에 휩싸이자 막상 혼자가려니 “나의 만주 생활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식사로부터 모든 시종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보살펴주는 안나의 존재”가 눈에 밟힌 것이다. 그때 자신이 중매하여 결혼한 육촌매부 오군부처가 찾아와 현재의 상황을 의논하러 오고, ‘나’는 홀로 기차를 타는 대신 오군부처와 안나를 데리고 신경을 걸어서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날 밤 ‘나’는 안나를 데리고 오군부처네로 가서 날이 새자마자 신경을 떠나려는 채비를 한다. 그런데 안나가 “창백한 얼굴로 기운없이 그러나 단호한 태도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귀환』과 마찬가지로 『이향』에서도 “단호한 태도”로 귀환을 거부하는 안나를 신경에 남겨두고 셋만

32) 이러한 서술로 미루어보아 『이향』의 ‘나’는 종종 서울을 왕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석훈 역시 신경에 있으면서 경성을 왕래했다. 이는 김송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송은 이석훈이 조선에 들어왔다가 1945년 5월 신경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다. 김송, 『자전적 문예반세기』 해방전후와 『백민』시절, 『신동아』, 1980.4.255면.

길을 떠난다.<sup>33)</sup> 셋은 맹가둔(孟家屯)을 거쳐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 어렵게 대둔역에 도착하였지만, 남행열차를 타기를 쉽지 않았고 세 명은 무의하게 이들을 그곳에서 보낸다. 그러던 중 다행히 고유수까지 “따-처(大車)”를 함께 타고가자는 청년의 제안을 받고 다음날 고유수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막상 떠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자 ‘나’는 심경변화를 겪는다. 그날 밤 안나의 신상에 안 좋은 꿈을 꾸고 ‘나’는 안나가 있는 신경으로 되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처자식이 있는 조선땅 남쪽이 아닌 안나가 있는 북쪽을 선택한 그의 귀환 길은 이 지점에서 균열에 봉착한다.

그렇다면 『이향』에서 안나가 “혼란의 도시” 신경이 피해 조선으로의 귀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안나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배태된 외부자적인 정체성이다. 『귀환』에서는 안나는 러시아 태생인 반면, 『이향』에서 안나의 고향은 함경도다. 안나는 함경도 태생이지만 가족 모두가 “소만국경”에 가까운 C시에 살고 있다. 안나의 가족이 조선이 아닌 “소만국경”지역인 C시에 있다는 것은 『귀환』과 마찬가지로 『이향』에서의 안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조선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안나는 고향을 등진 외부인, 경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안나가 ‘나’의 본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해방된 조선의 내셔널리즘에서 정상적인 가족의 범주로부터 벗어난 안나는 처음부터 조선인으로서의 확고한 자기의식을 지닌 ‘나’와 동행할 수 없는 인물이다. “서글픈 인생, 그한마디가 안나의 눈물의 비밀의 열쇠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안나를 우울하게

33) 안나가 자신을 신경을 탈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부분은 『귀환』과 『이향』의 서술이 동일하다. “그곳을 탈출하려할 때, 돌연 안나는 기운없는 창백한 얼굴에 다 그러나 단호한 태도로 자기는 이곳에 머물러 있겠노라고 동행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귀환』, 66면) : “안나는 한잠도 못잔듯한 창백한 얼굴로 기운없이 그러나 단호한 태도로 어쩐지 길떠나느것이 좋지않은듯하니 자기만은 떨어지겠노라 한다.”(『이향』, 147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시종일관 처자식이 있는 조선땅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보이면서도, 자신과 미묘한 감정선을 공유하고 있는 안나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표출한다. ‘나’는 안나를 데리고 조선으로 귀환하려고 했으나, 자신은 “부모 동생 있는데루 밖에 갈곳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대로 신경에 남은 안나로 인하여 ‘나’의 귀환 길은 해방된 조선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외부자인 안나에 대한 “숯은정”이 충돌하게 된다.

안나가 ‘나’를 따라서 조선의 경계 내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외부인 또는 경계인으로 남고자 하는 안나의 의지적 행위다. 이는 『귀환』에서의 수연이 작중화자 ‘나’의 이상향으로서의 여성의 범주에서 수동적인 행위를 보여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귀환을 거부하는 안나의 행위로 인하여 ‘나’의 귀환은 해방된 조선의 경계 내로 포섭되는 국민국가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여정이 아니라, 조선의 경계 바깥으로 이탈한 안나에 대한 애정과 겹쳐지면서 자기부정과 분열을 드러내는 여정으로 현시된다.

그러자 뚜-하고 뚜께없는 길다란 화물차는 움직움직 떠나기 시작한다. 헌병들이 살기등등한 얼굴로 자꾸 기어올르는 사람 들을 정리하노라 야단법석이다. 화차는 점점 속도를준다. 나는 그래도 무의미하게 두어번 「안나!」 「안나!」 하여보다가 절망적으로 아무 데고 붓잡고 화물차로 기어올랐다.

「아부나잇! 빠가!」

(중략)

이 차가 무사이 목적지까지 갈지도 의문이었다. 다만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오직 암흑속을 남으로 남으로 달릴뿐이었다. 그러나 안나는 어디로갔을까? 아모리해도 이차에는 안타을상 싶기만하다. 나는 나의혼을 한쪽떼어 전란의 거리에 파묻이고 얼빠진 육신만이 화물차에 흔들리며 암흑속을 달리는 일

종 모순된 상념에서 오래헤매었다. 한시바삐 서울로 가야한다  
는 줄기찬향수와 안나를 찾아서 헤매는 나의혼이 뒤엎켜 현  
실과 꿈의경계를 오락가락하며 곤패한 육체를 흔들리는 차벽  
에 내마꿨다.<sup>34)</sup>

인용문은 『이향』의 마지막 부분이다. 나는 신경에서 안나를 찾지 못하고 급히 남행 열차에 몸을 신는다. 『이향』의 기차 안은 아직 일본제국의 호령이 난무하며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암흑 속”이다. 이러한 귀환 길은 결국 ‘나’에게 분열과 혼란을 안겨줄 뿐이다. ‘나’는 안나를 잃고 “곤패한 육체”를 끌고 목적지의 도달이 불확실한 채 귀환하게 된다. 이러한 ‘나’의 귀환여정은 『귀환』에서의 귀환여정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귀환』에서 안나와 허철선생과 분리된 ‘나’는 수연과 정상적인 근대 국민국가의 가족으로 결합되면서 해방된 조선의 주체로서 “해방과 독립을 위해 물끓듯이 끓고 있을 고국”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자장가”와 같은 기차소리를 들으며 안정적인 귀환여정에 올라탄다. 반면, 『이향』에서 안나를 선택한 ‘나’의 귀환은 근대 국민국가의 정상적인 가족의 범위를 이탈하면서 “암흑속을 달리는 일종 모순된 상념”을 떠안으며 고국으로의 귀환의 당위성에 추문을 남기는 미완의 귀환여정이 된다.

####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진홍준의 『귀환』과 이금남의 『이향』의 서사는 상당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두 작품의 귀환여정과 결말은 ‘귀환’과 ‘이향’이라는 제

34) 『이향』, 153-154면.

목 그대로 한쪽은 해방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귀환'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귀환의 당위성에 추문을 남기는 이향으로서의 귀환여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그들의 귀환여정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는 인물은 귀환 동행자 여성의 행위다.

해방직후 해외에 있던 여성이 조선의 경계 내로 들어오는 방법은 남성의 꿈에 등장하는 이상향으로서의 여성의 조건에 충족할 때 달성될 수 있었다. 이때 여성은 조선의 남성, 즉 민족주체의 '배경막'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귀환』에서 수연의 행위가 그러하다. 그러나 남성의 꿈의 서사를 이탈하는 여자의 욕망도 분명히 존재한다. 남자가 꿈꾼 여자의 환상이 모종의 균열을 일으키면 남자의 내면은 붕괴되기 마련이다. 『귀환』과 『이향』에서의 만남이 그 예다. 여성의 행위가 남성의 기대와 부응에서 이탈하는 순간 여성의 행위는 남성의 주체성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복된다.

그렇다면 『귀환』과 『이향』이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른 결말로 드러낸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이는 이금남이 이석훈이 분명하다면, 두 작품 모두 자전적 소설이라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전적 소설 『귀환』과 『이향』에서의 '귀환여정'은 해방된 조선에서의 작가의 자기 정체성 형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해방직후 문단에 등단한 전홍준에게 '귀환'은 "새로운 조선사람"으로의 출발점이었다. 과거 식민지문단에서의 활동이력이 부재하는 전홍준에게는 과거의 이력보다 미래의 전망이 보다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로, 그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전홍준이 『귀환』에서 국민국가의 남성성을 획득하고 정상적인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며 해방된 조선으로 귀환하려고 했던 것에는 신진작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반면, 이금남이 이석훈이 명확하다면, 『이향』의 작가가 해방된 조선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과거이력은 걸림돌이 된다. 『이향』의 '나'가 조선땅과 조선인으로

서의 자기의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슬픈정”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은 작가의 자기정체성과 연관된다. 외부자인 안나와 동행할 때 작가의 자기정체성은 해방된 조선의 국민 국가의 경계내로 안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안나와 동행할 수도 안나를 버릴 수도 없었던 ‘나’가 방황하며 “곤패한 육체”를 껴안고 귀환열차에 몸을 맡기는 행위는 과거 식민지의 이력을 지우지도 드러낼 수도 없었던 해방직후 작가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향』의 귀환 여정이 해방된 조선의 국민으로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인 안나를 통해 추문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에는 이러한 작가의 자기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금남, 『이향』, 『민심』, 1946.3.  
전홍준, 『귀환』, 『여성공론』, 1947.7.

2. 논문

- 김복순, 『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1945년 8.15』, 『효풍』, 『해방』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26, 2011)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29, 2010.  
류보선,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49, 2012.  
류진희,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젠더』, 『상허학보』 27, 2009.  
신미삼, 『해방기 이석훈 연구』, 『인문연구』 77, 2016.8.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 32, 2007.  
이연식, 『해방 직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전농사론』 5, 1999.  
이연식, 『해방직후 조선인 귀환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일민족문제연구』 6, 2004.  
이연식, 『왜 식민지하 국외이주 조선인들은 해방 후 모두 귀환하지 못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24, 2006.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 2009.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장노현, 『전홍준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22, 2002.  
장석홍,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 25, 2003.  
전홍남, 『해방기 전홍준의 소설 일고』, 『현대문학이론연구』 7, 1997.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比韓文學』 40, 2006.

최정아,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귀환 의례’의 메커니즘과 귀환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3, 2009.

### 3. 단행본

Butler, Judith and Spivak, Gayatri, 『누가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혜연 옮김, 산책자.

Cumings, Bruce,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옮김, 일월서각, 1986.

Mosse, George L.,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Yoval-Davis, Nira,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西川長夫, 한경구 · 이목 옮김,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6.

山室信一, 윤대석 옮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Abstract>

## Establishment and Return of Nationalism in the point of Gender Recurrence view in the Liberation Period

Lim, Mi-J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ism of men returning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s reproduced by women's actions as being possible/impossible. Women who returned to Joseon in novels shortly after liberation are often reluctant or passive. However, the cracking and abduction of women's conducts can lead to unexpected events, which may be a sign of the birth of women with their own actions. In the case of men returning to Korea with women, the behavior of women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male national identity. The act of Su-Yeon, which is symbolized as ethnography ethnicity in the Return, provides a major background for securing the national identity of 'I'. On the other hand, Anna of Return is symbolized as an outsider, unlike Su-Yeon. By not choosing to return to Joseon, Anna causes cracks and divisions in the desire of men to enter the boundaries of Joseon as a national subject and makes his return to scandals. Such an action is not a backdrop for men but foreshadows a transformation into a woman as a subject with self-actions.



key words: Return, Nationalism, Gender, Self-Actions, Hongjoon  
Jeon, Seokhoon Lee, Geumnam Lee

투 고 일 : 2018년 2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2월 26일-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 2018년 3월 18일